

태평양야구모

제 113호

서기 1959년 6월 1일
단기 4191년 6월 1일

6/11 1959

사장 최백렬
주필 김창원
발행소 동지회관내
북킹거리 93-1
대금 1년 10원
전화 850849

UNIVERSITY OF HAWAII LIBRARY Collection

JUN 17 '59

동서간의 지적 교류 교육중앙소를 하와이에 설치 상하양원에 제출

(와싱턴 6월 9일 발에이 피) 미의회 상원 민주당원내 추은우 리는 B. 팔손 의원 (텍사스주 선출)은 9일 '동과서'의 지적 교류를 만드는 교육중앙소를 하와이에 설치하는 의안을 제출하였다 동시에 하원에도 동안이 하와이에 대한 '팔버' '스' 씨에 의해서 제출되었다

팔손 의원은 동안의 제출에 있어서 다음의 여러 점을 강조하였다

- 본안의 목적은 동과서간의 문화와 기술 교류의 중앙소를 통해서 미국과 아세아 태평양 제국과의 관계 이해의 증진 개선은 도모하는데 있다
- 서방으로부터 학생에 대해서는 아세아의 저명한 학자가 아세아의 지식을 주고 또 동방으로부터 학생되는 서방으로부터 학자가 그 지식은 전하게 된다
- 태평양의 통상화가 되는 취지를 전명하며 다수국민의 문화의 융화발전의 하와이에서는 언어가 장애가 없게 된다
- 이 지적 교류에 의해 여러나라 국민들은 서로 깊은 이해와 새로운 존경을 갖게 된다
- 새로 미국의 주가 되는 하와이는 동양 각국의 제민들에게서 양국의 문화를 제공한다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HAWAIIAN NEWSPAPER STACKS

(제 1면) (제 1주)

이 표적 중앙소의 설치비는 현재 미국으로부터 외국에 주고
있는 무기의 비용의 일소부분으로 부담한다. 평화는 무기로
서가 아니라 지식에 기초를 두지 않으면 안된다

외상회의의 의의 결정?

조주일재에 도지전개무

(제네바 9일발. 에이.피.이.) 미영불소외상회의는 9일, 허.터.
미국우징판의 숙소에서 2시간 조주일에 걸쳐 비밀회의를 열었는데
정돈상태는 여전히 타개하지 못한 모양이다. 제 조주일재로 드러
간 외상회의는 버.리.턴.은.제 수외회의에 대해서 아무런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실재로 끝날 수도 모른다. 미영불외상은 거절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허.터.장판, 구브도물빌, 부.라.사.외상은
결렬을 우려하고 있다고 우려했던 천.키.츠.는 말하고 있다

종말단계

(제네바 9일발. 공동.) 친전을 보지 못하고 있던 외상회의는 8일의
들이가서 명백히 종말단계에 향해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이
의상이 강하다. 비밀회의의 후의 기자회견은 회담내용에 대해
일절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 비밀회의에
관한 발표는 회의 4번(주) 8일은 소련(대공안대변인)이 4국을
대공해석하는 것이 보통인데, 내용은 잘 말하지 않는 것이 보통
이다.

그런데 8일의 기자회견에 나온 소련의 대변인은, 나의 외상
으로는, 라는 전제하에 회의가 종말에 가까워 온 것을 암시
하는 언급을 하였다.
또 대변인은, 구.롬.미.코.소.련, 로.의.의, 영.주.의.상.이, 핵.실.험.정.의.
회의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명백히 하였는데, 이것도 핵.실.험.
문제가 외상회의 범.키.내.에서, 걸.루.하.가, 시.자.가.된.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미앵」아침에 서서

대서양의 잠수함으로부터 발사

(재)는 발(八)일 발(에)이(되) (미해군은 우를 처음으로 우도탄에 의한
 우편물의 발송에 성공하였다. 우도탄은 잠수함상으로부터
 「하롤리나」의 「메리포트」에 있는 예비해군 항공공기지에 향해 발사
 된 것이다. 사육환 우도탄은 「레쿠라스」형이었는데, 「메리포트」
 에 돌린 것이 배달된 우편물에 대해서 우편국의 총무장 「삼마와힐드」
 식으로부터 그의 성공이 발표되었다

「아미앵」의 해적 어느 경우의 거리가 은반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우편물수거대는 「트린통」의 편지와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내온
 서한이 일통 「포함」되어 있다. 그외 「삼마와힐드」 식으로부터 관계
 상 하양원의 원 최고재판관 「각주」사 각지 우편국장에게 보낸
 것 등이다.

「아미앵」은 오전 11시 15분에 발사되어 11시 32분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착륙기의 상항을 「삼마와힐드」 식은 다음과 같이 말
 하고 있다. 「완전한 착륙」이었다. 「나귀」를 쫓아 우도탄은 활주
 속도를 느리게 하는 낙산술을 「뒤」를 면서 정지하였다.

이날의 우편물의 규양에 대해서는 발표되지 않았는데 내리
 우편물은 「각」 「각각」 취급을 받고 「모」 「각」 지로 발송되었다.
 지난 1월 1일 「삼마와힐드」 식은 「미실」에 의한 우편발송을
 예언하였고, 그 당시 「인간」이 「달」로 가기 전에 「노」 「노」로 부터
 「캐리」 「포」 「아」 또는 「영」 「국」 「이」 「노」 「우」 「스트」 「라」 「아」 등 세계 각지에 수시간
 만에 우편물이 배달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우주계획 추진에 미국 강한 결의

소련과의 군사과학 경쟁에 전력

(와싱턴 6월 6일 발. 공동) 미 상원 본회의는 네마리의 「최」 「노」 들
 「실」 「문」 「디」 「스」 「카」 「바」 「라」 「트」 「호」 「위」 「성」 의 「실」 「재」 후 「1」 「5」 「시」 「간」 「이」 「내」 「에」 「미」 「정」 「부」 「의」
 「1」 「9」 「6」 「0」 「회」 「계」 「년」 「도」 「(」 「7」 「월」 「1」 「7」 「일」 「부」 「터」 「영」 「년」 「6」 「월」 「말」 「까」 「지」 「)」 「의」 「민」 「간」 「우」 「주」



(제 3면의 지수)

계획, 지출권한 40% (천 5백만)를 81대 1의 압도적 다수로
가결, 소련과의 군사과학 경쟁에 한 발이라도 뒤떨어지지는 안 된다
결의를 표시하였다

동예산안은 아예 전하위 대통령의 요청을 그대로 인정된 것으로
전해 4백 75만 명을 사감한 하인본회의로 회부되어 재심의
반개하는데 전액 통과는 거의 확실하다

알바니아 불가리아의

라켓트 기지 설계 계획

(문헌 첫일발에 의하면) 「흐르시조흐」 소련수상은 벨간, 제국의
상호관리에 의해서 「비원자력」 라켓트 기지」으로 되지 않으면
소련은 알바니아와 불가리아에 라켓트 기지를 설치할 것이라고
첫일 선언을 발표하였다

수상은 최근 문제의 2국을 방문하고, 모스크바로 도라왔는데
이들이 기지가 되면, 이래리와 히랍의 라켓트 기지가 사정거리 내에
들어 가게 된다고 말하였다. 흐르시조흐 「씨가 불가리아를 기지 설치
예정지로서 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전에는 알바니아를
그후보지로 하고 있었다. 흐르시조흐 수상은 알바니아에 대해
행하는 목적은 소련에 대해 행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해석한다
고 말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알바니아는 사회주의국에 침략
의 손이 뻗치면, 지시로, 알샤와 조약에 의해 전쟁이 버러진
것이다. 라고 경고하였다

불란식의 「포구」 선언

미영에 대한 최후의 경고

(제네바 11일발 공동) 불란식은 핵병기와 세계전략을 싸고
있는 포섭에서 미영양국으로부터 민족할만한 회답을 얻지
안 못한 이상 북대서양조약 기구에는 협력할 수 없다고 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서구진영에 또다시 「드름」 포구」을 던졌다



(제 4면의 제 주)

이래로는 징거범으로는, 누스캇드 부대서양조약기구사령관이 불린서
로부터 부대서양조약기구의 전략공군의 일부를 철수한것에 대한
보답으로 예전부터 요구하고 있던 핵병기의 비밀정보의 제공에
대해서 미영이 확실치 않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것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것으로 금년 3월의 부대서양조약기구로부터 불린서의
지중해함대의 전사지휘권을 철수한다는, 드골, 서명에 따르는 것
이다. 불린서의 원수소독린 연구는 이미 어느정도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미영으로부터 일부의 비밀정보를 얻지못해
그완성 못미처서 정지되어있다고 한다. 금번의 불린서의 서명은
간접적으로는 미영에 대한 최후통첩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소식통은 보고있다.

동경의 인구, 세계제일의

(동경+일반공동) 4년전(1957)의 10월에 8백만명에 도달한 일본.
동경의 인구는 5월 1일 현재로 드디어 9백만을 돌파하고 있다.
동경시통계부 1일 발표에 의하면 5월 1일 현재 동경의 총인구는
9백 3만 2천(4백 43만)으로, 작년 동기보다 29만 1천(4백 77만)
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최근의 세계 5대도시의 인구를 비교하면 대런돈은 8백 38만
9천명, 뉴욕은 8백 9만 5천명이며 인구의 증가가 크지 않음
으로 동경이 인구로서는 세계 제 1위로 되었다.

제 5차 아시아 반공대회 열다

“공산주의와 공존불가”

리 대통령 환영사에서 주장

소련의 제국주의 침략에 대항하여 아시아 십억민중의 굳게
결속된 반공역량을 전세계에 다시 한번 과시하고 반공운동의
범세계적 기폭제로의 성정을 가가하는 역사적인 제 5차 아시아
반공대회는 예정대로 6월 1일 상오 열시 시내 관성동 진명



(제 2차 연의 제 2주)

여고강당에서 성대히 막을 올렸다. 회원들과 「몹서버」국을 포함한
십대개국과 7개지역대표등 도합 2십2개국 533명의 대표가
참석하는데 개막원 이날의 개최식은 「리」대통령을 비롯하여
「장」부통령 「이」의장대리인 「윤」국회의장의원장 「조」대법원장등
정부요인과 주한각국의공사절 그리고 1천여명의 방청인으로 임박의
여지가 없었는 초만원의 성황을 이룬가운데 정각열시 작년 「방공규」
제 4차 회의에서 대회의장으로 지명된 한국대표 「백낙준」의장의
엄숙한 개회선언으로 의의 깊은 제 1일 회의의 막을 올렸으며
먼저 「리」의기 대표 「나」스리 트레이바 「여」사의 제안으로 전미국무장관
고 「덜레스」사와 한국전전몰은 유엔장병의 명복을 비는 1분간의
무념이 있었다. 이어 「백」의장의 개회사 그리고 제 4차 회의의장
이었던 중국수석대표 「공」정강 「시」의 연설이 있었다. 곧 이어 우리와
같은 박수를 받으며 「리」대통령이 등장하여 별항과 같은 환영사를
함으로써 이날 개회식은 성대히 끝마치었다. 그런데 이날 개회식은
상오 열한시의 일단 끝나치고 추회로 들어갔으며 하오 2시부터는
「천」각사에서 제 2차 회의가 속개될 것이다.

반공주의 세계평화와보좌

이 기구의 최대의 특징은 공산주의자와는 정반대로 그것이 국민의 국민
에 의한 그리고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것임이다. 이것을 여러분자신의 국민
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을 동행해서 다른나라 국민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공산주의의 패배를 보증함과 아울러 정의와 집단안전(보좌)에 입각한
하나의 제도를 확립케 하고 우리가 모두 크게 천하고 있는 평화와 번영이
이러한 것을 보증하는 것이요이다.

그러나 본인은 새삼스럽게 여러분앞에서 공산주의에 대한 비난을
외포할 수 있는 생각이 없었음이다.

여러분들은 공산주의를 잘 알고있으며 그렇기때문에 여러분은
수천 「마일」 밖에서 어떤지 하면 매우 짧은 시간내에 공산주의를
제거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것이요이다.



